

최창식 치과
Mark C. Choe D.D.S.
턱관절 치료 / 일반교정 / 크라운
703.279.3400

고수민
통증 재활 의학과
주사 및 약물치료
703-865-5970

조선일보

Hanmi Bank
SBA loans and commercial loans
Michael Lee • 703-989-0550
7700 Little River Tpke #200
Annandale, VA 22003

\$59 alignment special
ACCU AUTO CARE
Towson 지역
정비와 바디 한 곳에서
410.296.6478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암 투병’

‘림프종암 3기’ 진단... 항암치료 요망... 필요할 경우 부지사가 업무대행



래리 호건 주지사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암 진단을 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래리 호건(59) 메릴랜드 주지사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림프종암에 걸려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한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날 애나폴리스 주지사 관저에서 열린 회견에서 “상당히 진행되고 매우 공격적인 비 호지킨림프종(non-Hodgkin Lymphoma)암 3기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호건 주지사는 “곧 항암화학요법을 통해 치료를 시작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보이드 루더포드 부지사가 업무를 대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병 중에도 메릴랜드 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닦친 모든 장애물과 가파른 언덕을 넘을 때와 같은 힘으로 병마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회견에서 호건 주지사는 “의사들이 암을 이겨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며 “지난해 선거에서 앤서니 브라운에게 이겼을 때보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브라운은 당시 선거에서 호건 주지사가 물리친 후보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달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직전에 면도를 하다가 목에 난 혹을 발견했다. 그는 “이달 초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다양한 검사를 받느라 회의와 행사가 불참했다”면서 “이 때 30여개의 혹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아내 유미 호건 여사와 딸, 사위, 손녀 등 가족들과 주정부 관계자 다수가 참석해 호건 주지사를 격려하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또 워싱턴포스트 등 주류사회 주요 언론들도 “이 같은 소식에 충격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사위’ 불리는 호건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한인들의 높은 지지도 당선돼 올해 1월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성환 기자

“열리면 제대로 보입니다”

조지워싱턴 경영대학... 본지 박한국 사장 특강



본지 박한국 사장이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조지워싱턴 경영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의 일환인 GET(Global Experience Trip) 프로그램에서 본지 박한국 사장이 특강을 했다.

22일부터 조지워싱턴 경영대학교에서 진행된 ‘열리면 보인다’를 주제로 한 이번 특강에서 본지 박한국 사장은 “한 분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함께 평소 자기관리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비전을 보는 것이 열린다”고 전했다.

특히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수동적이기 보다는 자신감을 갖고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항상 넓은 시각에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사회적 성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증권금융에서 20여 년간 근무하고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진학한 정한호 씨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개인적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이 좋은 경험

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지워싱턴 경영대학 Ayman El Tarabishy 박사는 “우리는 다음 세대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Executive director인 Paul Swiercz 박사는 “사회적 기업은 향후 전망이 밝고 큰 잠재력을 갖고 있어 미래에는 사회적 기업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무하마드 유누스와 같은 혁신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지워싱턴 대학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은 MOU를 통해 MBA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조지워싱턴 경영대학교에서 25일까지 진행된다.

손우진 기자

워싱턴평통 위원 대폭 물갈이

제 17기 118명 위촉... 여성·젊은층 늘어



차지,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여성도 크게 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인사회 관심이 집중됐던 회장에

김성환 기자

전체 118명에 이르는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위원 선정에서 장기 연임자와 중복된 단체장 상당 수 배제되고 1.5세와 2세 그리고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결과와 자료, 정보에 따르면 16기 위원 120명중 교체인원이 무려 60명이 넘는다. 이처럼 16기 위원의 교체 비율이 예상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상당 수가 신청을 포기, 자동교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118명의 구성비율에서도 1.5-2세 및 45세 이하 인사가 상당한 비율을

는 내심 미주지역 부의장을 염두에 두고 있던 황원균 현 회장(60, 사진)이 연임됐다. 16기 워싱턴평통을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황 회장은 지난 2년 간 다하지 못한 일을 챙기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평통 본연의 임무 수행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영사과는 위촉된 17기 위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 동의여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7기 민주평통은 오는 7월1일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된다.

북한, 김국기·최춘길씨 ‘무기징역’

국가전복 음모죄·간첩죄 적용 최종 선고

북한이 23일(현지시간)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

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다.

중앙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음모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

소됐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어 이들이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찌보려고 한데 대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 화폐 제조국, 테러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 보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했으며 우리 당, 국가, 군사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 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던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모략 행위를 하던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CNN 방송은 지난 5월 평양의 한 호텔에서 당국자 배석 하에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씨와 최씨가 북한의 주장대로 간첩 혐의를 시인했으며, 자신들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남한 정부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민, 3명중 2명 과체중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몸무게가 지나치게 많이 나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전미의사협회지널에 실린 워싱턴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연구 결과, 25세 이상 성인 가운데 남성의 75%, 여성의 67%가 각각 비만이거나 과체중으로 드러났다. 이는 20년 전 남성의 63%, 여

성의 55%가 비만 또는 과체중이었던데 비해 각각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최근 있었던 미국인들의 각종 식생활·운동 캠페인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미가 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자료를 보면 2012년 현재 국민 6760만 명이 비만이고, 6520만 명이 과체중이다. 비만 인구가 과체중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비만은 체지방비율(BMI)이 30 이상일 때를 말하며, 이 비율이 25~29.9이면 과체중에 해당한다.

박미섭 최추신경 교통사고 / 통증치료 703-543-4810	에쁜 치아, 건강한 치아 나투라 치과 종합미용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이중국 종합의료원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내과 • 외과 • 부인과 • 신체검사 등 703-256-6205	신원석 내과 전문의 MAPLE MEDICAL GROUP 최고의 교육을 받은 25년 경험으로 더더신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703-865-8621 703-865-8615	소아전문치과 전문의사 한장협 703-383-3434 10614 Warwick Ave #5 Fairfax, VA 22030	이민호 이비인후과 알레르기 비염 • 축농증 • 편도선 난청 및 보청기 • 코골이 수술 만성 어린이 중이염 703-658-0300	WASHINGTON LAW FIRM, P.L.C. 전종준 변호사 한국 최초 미이민법 저자 703-914-1155 myusvisa.com
---	--	---	--	--	--	---

Portner & Shure, P.A.

포트너앤 슈어 법률 사무소

메릴랜드 301-854-9000
프로페셔널한 팀을 만나보세요

Get More 더 많은 보상을 받으세요!

with Portner & Shure

포트너앤 슈어에서 당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찾아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 703-916-1227
Time Magazine과 Korean Journal에 소개된적이 있습니다

최근 보상 실적

Google REVIEWS 5.0 stars

- 자동차사고로 인한 협상: \$1 MILLION
- 개인상해로 인한 협상: \$2.6 MILLION
-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협상: \$1 MILLION
- 사망피해로 인한 협상: \$990,000

포트너 & 슈어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16개의 오피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 승소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 저희 법무팀은 100년 이상의 통합된 법적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뛰어난 서비스를 통한 빠르고 신속한 결과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 ★ 차량손상 또는 폐차 관련 및 렌트카 대여에 도움을 드립니다.
- ★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실 수 없을 경우, 저희가 첫상담은 어디든지 방문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포트너 & 슈어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175만 달러 넘게 보상을 받아내었습니다

- 포트너 & 슈어의 합의 협상에 대한 예:
- 교통사고 케이스로 본 협상 1밀리언 달러
- 오토바이 케이스로 본 협상 1밀리언 달러

개인상해

포트너 & 슈어는 개인상해 케이스로 \$2.6 밀리언 달러의 보상을 받아내었습니다

- 잘못된 사망에 대한 클레임의 협상으로 \$990,000 달러를 보상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국립 교육 형사 변호사 기관의 멤버

- Time Magazine에 선정된 우수한 법정인입니다.
- 2014년에 령경 10위안에 기록되었습니다.

WWW.PORTNERANDSHURE.COM WWW.KOREANACCIDENTLAWYER.COM 한국어 뉴스레터